

쟁점(Ⅱ): 韓流: 문화인가 상업주의인가

한류는 콘텐츠 산업

나 영 주(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외래교수)

한류의 물결이 도도하다. 지금으로서는 그 흐름의 끝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한류의 바람을 잠재우고 싶어 하는 이나 한류의 열풍이 쉬 잠잠해지리라고 예단하는 이들에게는 속상한 일일지 모르나 그 열기와 열풍은 은근히 지속되고 있다.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 왜곡,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제국주의적 침탈사를 교묘하게 감춘 새로운 역사 분식에 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전에서 그들은 사람살이의 그렁고 그런 사실들을 드라마틱하게 만든 한국의 '대장금'에 너나없이 빠져들고 감동하고 있다. 사람살이의 고단함과 느껴움을 잘 버무려 표현한 작품이 가지는 감동과 공감에 국경과 민족의 경계가 있을 리 없다면 이제는 생각보다 꽤 오래되기까지 한 한류에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 보인다. 한편 우리 쪽에서 볼 때 근자의 한류에 대한 호들갑 혹은 관심은 그동안 국력이나 문화에서 변방의 주변적 국가에 머물러 있었다는 자기 확인이 문화 중심국이라는 신분적 상승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에서 출현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1970년대 말 다소 근엄했던 시절을 거쳐 온 세대들에게 유하 감독

의 <말죽거리 잔혹사>는 잔혹스러우나 소중한 기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기억의 실마리는 그 세대를 거친 이들이면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이소룡-우리는 그를 이소룡으로 기억하지 리샤오룽이라고는 결코 부르지 않았다-에 대한 추억들이다. 당시 이소룡 세대들은 그를 닮기 위해 코를 훔쳐 대며 “아보”를 외치곤 했으며, 쌍절곤을 책가방 깊숙이 넣어 다니곤 했다. 그런 행위는 이소룡과 일체감과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어설피지만 신성한 제의였으며 또래의 주체할 수 없는 유행이자 문화였다. 따라서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주인공의 이소룡에 대한 학습과 흉내는 감독의 이소룡에 대한 오마주(hommage)라고 할 것이다.

소설가 성석제는 모일간지에 자신이 연정을 품었던 추억 속의 여배우로 진추하를 꼽았다. ‘사랑의 스잔나’의 여주인공으로 나온 그녀는 당시의 낙양의 지가를 올리는 여배우이자 가수였다. 한 개인에게 영화 밖에서는 결코 만나보지 못한 그녀는 당시 한 청춘의 모든 이성적 감성의 준거였던 것이다. 1980년대 중후반 <영웅본색> 등 홍콩 누와르를 경험한 세대들에게 주윤발, 장국영, 유덕화 등은 또 다른 영웅이었다. 주윤발이 질질 끄는 롱코트를 입고, 성냥개비를 질정질정 씹어대며 쌍권총을 휘둘러 대는 장면은 두고두고 복습하는 장면들이었다. 이처럼 영화와 가요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파급력은 세월의 더께 속에서도 개인에게 치명적인 기억을 남기며 또래 세대들의 집단적 통과 의례의 흔적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똑같은 맥락에서 한류를 체험한 이들이 세월이 흘러 그들의 성장기를 회억하게 될 때 중국의 어떤 이는 ‘안재욱’을 떠올리며 그의 청춘을 반추할 것이고, 홍콩의 어떤 이는 ‘전지현’을 떠올리며 그의 엽기

행각에 웃음을 지을 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일본의 청소년들은 ‘보아’의 상큼한 가창력과 춤을跳는 날의 즐거운 기억으로 간직할 것이며, 베트남의 어떤 소녀는 먼 훗날 ‘장동건’이라는 한국 배우에 대한 막연한 찬상에 한 시름을 잊을지도 모른다. 그런 기억 속에 한류의 ‘한국’이 자리하고 있다. 문화에 등급이 있다는 것이 우습기는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확인하듯이 대중문화의 위력은 ‘우아를 떠는’ 고급문화라는 것보다 정서적 침투력이 훨씬 강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대중문화의 세례에서도 그 수순은 있어 보인다.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적 파급은 수평적이지 않으며 부등가 교환의 특성을 가진다. 자본주의 체제의 막강한 힘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클리프 리처드에게 혼절하고 레이프 가렛에 열광했던 기억은 그리 먼 세월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이 막연한 모방과 동경의 대상이었던 상징적 서양이었기 때문에 환호작약한 것인지, 억압적 체제에서 이국적인 것에 대한 기호와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이 정서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감정이 분출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뛰어난 대중 문화적 재능과 감각이 그 때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것인지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에서의 몇몇 사례를 예외로 한다면 한류의 진원지는 우리와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근대화와 민주화의 세례를 덜 받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이다.

앞서 언급한 노래와 영화가 한 때 그것을 흡수한 이들에게는 분명히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고 또래 세대의 일시적 유행이었음이 분명하지만 ‘문화’라고 불리기에는 다소 ‘머시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마찬가지로 한류가 한 때 사회적 현상으로서 유행인지, 문화적 현상인지 하는 문제는 개념적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이다. 여기서의 문화

는 이중적 위치에서 점검될 수 있다. 즉 한류를 공급하는 측의 상품 내용으로서의 '문화' 정체성을 시비 걸 수 있으며, 소비하는 측에서 그것이 '문화' 적 현상일 수 있고 '문화화' 되었는데가 논란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이소룡 세대들의 이소룡에 대한 모방과 선망은 유행성 전염병과 같은 것이었으며 이소룡에 대한 숭배는 그를 이야기 하지 않으면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할 정도로 당시 또래들의 문화적 코드로서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었다. 이처럼 이소룡 신드롬에 관한 일상적 용례에서 보이듯이 유행과 문화라는 개념은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며 대체되기도 한다. 위험스럽지만 굳이 파자(破字)놀이를 하자면 유행은 문화일 수 있으나 문화가 유행이기에는 2% 넘게 부족해 보인다. 문화는 유행을 넘어 구성원들의 가치와 행위에서 체제 내화된 그 무엇이며 그것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류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배우를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무리다. 왜냐하면 한류는 특정 배우가 아닌 한국발 문화 상품에 대한 파상적 애정 공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한국적 문화를 고유하게 내장하고 있는가에 관한 논의에서는 자신이 별로 없을 것 같다. 현지에서 한류라는 한국적 상품이 소비적 측면에서의 유행이 아닌 '문화'로서 체제 내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자신할 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

서구적 가치로 재단된 근대화 이후 동아시아에서 한류는 그런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세례에 먼저 노출된 지역으로서 서구적 문화의 한국적 변형과 착종 문화의 재전파이며, 한국의 전통적인 고유문화의 전파와 접변 현상이라기보다는 글로벌적 특성을 가지는 퓨전 문화의 특이한 초국가적 유행이다. 거기에 한국적 얼과 고유문화를 심각하게 강조

하는 것은 과도한 애국심의 투영이거나 쇼비니스트(chauvinist)로 비칠 수 있다. 그와 같은 논리는 한국적 입장에서 한류의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를 설정해 놓고 한류를 해석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에 다름 아니다. 냉혹하게 이야기하자면 한류 열풍을 이끄는 호의적인 요소는 인종적 유사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한 축이며, 선망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보상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의 감정이입이 한 축일 것이다.

한편 한류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호조 현상이다. 그런데 그 품목의 내용이 ‘문화’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 한류의 논의를 복잡하게 만든다. 여타의 상품이면 분명 기능적, 기술적 측면에서 질이 좋거나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라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나 한류의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이다. 드라마, 가요, 영화 등을 1차적 품목으로 하는 한류는 언론이나 학계에서 문화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불린다. 그런데 한류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유형적 특성을 갖는 것이라면 한류 논의에서 시장적, 상업적이라는 의미는 뉘앙스에서 부정적이기보다는 그 반대적 의미를 함축한다. 일상적 쓰임새에서 통상 ‘상업적’이라는 의미의 뉘앙스는 이중적이다. 부정적 뉘앙스는 어떤 상품의 질과 내용이 우선적이며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이윤이 주요 목적인 비인간적인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시장적이라 함은 경합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생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뜻하나 이 의미 역시 과도할 경우 비인간적이거나 경쟁의 극단으로 읽히기도 한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한류 현상은 그 상업적 측면에서 아직은 경계하거나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유통 체계의 미성숙 등으로 한탕주

의적 현상이 없지 않은 것으로 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한류라고 논의할 수 있는 현상은 시장적, 상업적 측면의 성공으로부터 배태되었기 때문이다. 즉 상업성과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한류라는 현상의 논의 자체가 무망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그 상품이 여타 상품과는 달리 한국 국적의 사람과 우리의 무형의 가치와 풍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류가 상업적이냐 문화적이냐 라고 하는 쟁점은 한류의 논의에서 고갱이임에 틀림없으나 그런 식으로 논의를 제한할 경우 한류의 복잡 다양한 학제적인 논의 영역을 축소할 공산이 크며, 동어반복 때문에 논의를 쉽게 피로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지금의 한류 영역에서 2차 경험산업으로의 한류의 확장이 활성화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한류는 일차적으로 이미 일반 상품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따라서 여타 일반 산업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처럼 한류 논의에서도 핵심은 어떻게 문화 산업으로서 한류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류의 미래에서 1차적 논의 초점은 좀 더 상업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업적이라 함은 문화 콘텐츠로서 개별 및 지역 소비자들의 취향과 페이스를 자극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뜻한다.

헐리우드의 공세를 자본으로 무장한 제국주의의 침병으로 평가 절하하는 식의 주장도 일면 설득력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헐리우드의 시스템과 논리, 극의 서사구조 등이 그것을 소비하는 이의 공명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면 조기 사망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는 지점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막강한 자본과 국제적 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문화로서의 힘은 그것을 향유할 경우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지겹지 않고 즐거운 감정을 갖게

되는 대목에서 발생한다. 지금의 한류는 그러한 보편적 감정을 자극하고 공감을 얻어 냄으로써 할리우드류의 상품과는 다른 상업성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한류에 대한 혹독한 비아냥이기도 하지만 키치(kitsch)적이고 퓨전적인 문화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류는 이미 상업성과 시장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붕어빵에 붕어는 없다는 식의 한류에 대한 냉소적인 접근은 한류의 문화적 내용을 제대로 간파한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근대화 이후 특히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대중문화의 독특성과 고유성보다는 나름의 독창성을 가미한 잡종 문화가 더 경쟁력과 호소력을 갖추고 있다는 일면을 소홀히 한 주장일 수 있다. 폐쇄성과 협량함을 일부러 주장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우월감은 지금쯤은 점검되어야 할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이다.

1980년대 은성했던 홍콩 누아르 영화가 일찍 퇴조한 것은 소재의 빈곤과 서사의 단순성 및 후속 스타군의 단절에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나치게 스타 의존적이고 유통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나 계획이 없으며, 콘텐츠 산업으로서의 보편적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철학의 빈곤 등 한류에서 나타나는 한계에 대한 충고와 비난을 도외시한 채, 즉흥적인 한탕주의적 상업성에 매몰될 경우 한류는 관광산업 등 2차적 파생 상품의 호황은 고사하고 말 그대로 ‘한 때의 유행’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한류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내용과 지속성에 대한 검토와 보완 작업이 꾸준히 더해져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한류의 지속을 위한 관련 상품의 연계망과 인프라 구축이 조직적으로 보조되어야 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시장에서의 논리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식에 의해 수행된다. 시작부터 창대하여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상업성이 없거나 시장성이 없는 한류를 소비할 만큼 동아시아의 후진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류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첩경은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개별 지역 소비자들의 기호와 취향과 정서의 틈새를 예리하게 채워 넣는 튼실한 상업성 강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생물의 종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생태계의 지속 기능을 담보할 수 있듯이 문화적 다양성이 보호되어야 문화적 접변과 전파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며 문화적 창신성이 활성화될 수 있다. 때 이른 우려인지는 알지만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부과된 스크린 쿼터 압박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열풍은 모순적이며 동시적이다. 이미 한류에 대한 우려와 거부가 일본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한류의 일방적 소통은 현지의 한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 문화에 대한 아전인수적 우월감과 자국 문화의 쇠락에 대한 반작용 때문일 것인데 조심스러운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빈곤한 비민주 국가의 정치적 난민을 대책 없이 내치기보다는 적절하게 배려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한류가 유행하는 지역과 상당부분 겹치는 곳에서 코리안 드림을 좇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산업 노동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 주는 것들이 한류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인프라의 중요 요소가 된다는 것은 소심에서 발로한 사족이다.*